

وجادلهم بالتي هي أحسن

حوار بين مسلم ومسيحي

성경이 증언하는 이슬람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대화

Muslim Christian Dialogue

in Korean language

By H. M. Baagil, M.D.

باللغة الكورية

ترجمة: عبد الله باري الكوري

번역: 압둘라 박동신 (by Abdullah Al-Kory)

www.koreanmuslim.com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번역자 서문 (translator: Abdullah Alkory)

알함두릴라! 이 책은 영문 서적 'Muslim Christian Dialogue By H. M. Baagil, M.D.'과 동일 서적을 아랍어로 옮기며 일부 보완한 '히와르 베이나 무슬림 와 메씨히'를 한국어로 **번역 및 보완**한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분의 성서 토라를 계시해 주셨고 또한 예수에게 인질(복음서)을 계시해 주셨지만 그 원본은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 모든 기독교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축복을 주어 아브라함부터 이스마엘로 이어지는 축복과 약속이 무함마드에게까지 이어질 것임을 예언한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또한 모세, 다윗, 예수 등 그분들은 선지자이며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를 말하고 있으나 그 변형된 사본조차도 오늘날까지 새번역 이라는 이름을 거치며 계속해서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문 번역본을 봐도 킹제임스와 NIV 버전이 내용이 확연히 다르며 그 외에도 모든 번역본들에서 계속해서 삭제하고 변형하는 부분들을 보면 모두가 예수가 신이 아니라는 말하는 부분들이고 바울이 새롭게 추가한 부분에서는 예수가 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애초에 원본이 없고 복음서만 해도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들이 위경이라 칭하고 폐기한 서적들은 대부분 예수가 신이 아니라 선지자이며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한다는 내용들을 가진 것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독교인들은 보혜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이 변형시키고 조작한 성경에서조차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한 예언은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끝까지 보신다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종교를 변형시켰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슬람으로 그분의 종교를 바로 잡으시고 그분의 마지막 성서 꾸란을 그분의 마지막 사도 무함마드에게 계시하셔서 보호하시고 우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제가 이 책을 번역하면서 가장 황당하게 다가온 점은 수많은 영어 성경 버전들에서 예수가 신이 아니라는 구절과 무함마드가 언급되는 부분을 조작하려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어 번역

본들은 더욱 심각하게 예수가 신이 아니라는 부분을 노골적으로 바꾸려 했던 것이 눈에 보였고 영문 번역본보다 더 심각하게 악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한국어 번역본들이 영문 성경보다 매우 심각하게 단결하여 오번역 되어 있었으며 거기다 더해 새로 나온 번역본들은 전혀 다른 내용들도 나왔습니다.(그래서 본 서적에서 성경 구절을 다양히 인용한 부분에서 신의 이름이 하나님, 하느님, 여호와, 야훼 등 다르게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미 서구에서는 성경의 오류가 다 밝혀졌고 그 변형된 성경조차도 기독교가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만든 종교가 아니기에 역사적으로 출발부터 잘못 되었으며 이를 깨달은 서구의 젊은이들은 누구도 교회를 가지 않고 문단은 교회들은 마스지드로 바꾸어 예수가 아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목사에게 세뇌되어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이 책을 계기로 눈을 뜨길 바랍니다. 본 서적의 내용과 상관없이 잘못된 철자표기나 오타의 경우는 koreanmuslimtv@gmail.com 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 번역이 수정될 때마다 날짜를 기록하여 매번 PDF 파일로 수정하고, 개인 홈페이지 www.islamkorea.com 에 업로드 하여 다운로드 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인 샤~알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잘 안되시는 분은 텔레그램 채널 <https://t.me/koreanmuslimtv> 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을 비교 설명하는 강의 영상을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서 한국이슬람방송을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번역자: 압둘라 박동신 (عبدالله برك الكوري)

*번역자의 동의 없이 악의적으로 내용들을 수정하여 배포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첫 공개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무흐썬 교수님께 전달)

본 번역본은 수정 중이며 이후에 반영 후 pdf 파일을 islamkorea.com 에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샤알라

목차(차례)

대화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첫 대화 시작	6
성스러운 성경	18
삼위일체 교리	28
예수의 신성에 대한 교리	35
신의 아들이로서의 예수에 관한 교리	45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50
속죄와 원죄의 교리	56

성경 속의 무함마드

이스마엘과 이삭은 모두 축복 받았습니다	59
예레미야의 예언자 기준	63
실로가 올 때까지	64
베카가 메카이다	65
영화로운 나의 집	65

나귀 전차와 낙타 전차_____	67
모세와 같은 선지자_____	68
내가 택한 나의 종복, 나의 사도_____	70
다윗 왕은 그를 '나의 주군'이라고 불렀습니다_____	73
선지자 무함마드의 메카에서 메디나로의 이주 예언_____	74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_____	74
성령과 불로 세례하기_____	75
천국에서 가장 작은 마지막 선지자_____	76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자들_____	76
보혜사_____	77
선지자 무함마드를 예언한 성경_____	80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첫 대화 시작

기독교인: 왜 지난 10년간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 사이에 그들의 믿음에 대한 많은 토론이 많이 이루어졌나요?

무슬림: 그것은 우리에게 여러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신 유일하신 창조주가 있다고 믿고 그중에는 하나님의 사도인 예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성서, 꾸란에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말하니 “마르얌(마리아)이여! 실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그분으로부터의 말씀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시노라. 그의 이름은 ‘마르얌의 아들 메시아 이사(예수)’이며, 현세와 내세에서 명예로운 자로서 (하나님께) 가까워진 자들 중의 하나라.”} (꾸란 3장 45절)

토론은 유럽, 캐나다, 미국, 호주 어디에서나 열려 왔습니다. 1970년 로마와 1974년과 1978년 카이로에서 바티칸 신학자들과 이집트 무슬림 학자들 사이에 대화가 이뤄졌습니다. 1978년 로마에서는 바티칸 신학자들과 사우디아라비아 무슬림 학자들 사이에 또 다른 일련의 대화가 열렸습니다. 무슬림들은 또한 많은 교회들로부터 초대를 받아 이슬람에 대해 알렸습니다.

기독교인: 기독교가 시작된지 거의 2 천년 전이고 이슬람교가 1 천 4 백년 이상이라면, 왜 이런 논의들이 수세기 전에는 열리지 않았나요?

무슬림: 지난 3-4 세기 동안, 원래 무슬림들이 진출했던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에 의해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기독교 선교사들과 종교 식민지 개척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치료 옷, 음식, 그리고 일자리를 주며 동시에 이슬람을 억압하는 정책을 펼치는 등 그들이 가진 모든 수단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무슬림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많은 무슬림들이 노동자로서 그리고 전문 지식인으로서 일을 찾아서 혹은 공부를 위해 서양으로 이주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기독교인들과 훨씬 더 가깝게 접촉하게 했습니다. 또한, 유학생들은 그들에게 이슬람을 소개하는데 적극적이었습니다.

기독교인: 최근 기독교 성직자들과 무슬림 학자들간의 대화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무슬림: 저는 둘 다 아직 개종자들을 놓고 경쟁하고 있지만, 둘 다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려 노력함으로 인해 더 큰 관용과 이해를 확립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의 많은 작가들이 이전처럼 이슬람과 선지자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과 모욕을 일삼는 것에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고,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무슬림들이 유대인이나 무신론자보다는 기독교에 더 가깝고 친근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것 같습니다. 성 꾸란에 다음과 같이 예언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대는 믿는 신앙인들에게 대적하는 이들을 유대인과 이교도들 가운데서 발견하리라 또한 그대는 우리는 기독교인들이요 라고 말하며 믿는 신앙인들에게 사랑을 표시하는 그들을 발견하리니 이들은 오만하지 않는 성직자들과 배움에 열중하는 학자들이라} (꾸란 5장 82절)

일부 기독교 종파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선지자 무함마드가 이스마엘의 아들 케다르(게달)의 직계 후손임을 인정함으로써 마침내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 장로교 기독교 교육 위원회의 후원을 받는 데이비드 성경 사전(1980)은 "케다르(게달)"라는 단어 아래에 "...이스마엘의 후손인 부족(창세기 25:13)"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다르(게달) 사람들은 Pliny's Cedrai 였으며, 그들의 부족에서 마침내 무함마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국제 표준 성경 백과사전은 A. S. 풀턴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합니다: "...이스마엘 부족중에서 케다르(게달)는 가장 중요한 부족 중 하나였을 것이고, 따라서 이후 사막의 유목 부족들에게 그 이름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무슬림 계보학자들이 무함마드의 혈통을 추적하는 것은 케다르(게달)를 통해서입니다.

또한 스미스의 성경 사전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케다르(게달).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창세기 25:13) ...무함마드는 케다르(게달)에서 시작된 유명한 꾸레이시 부족을 통해 아브라함에게까지 연결되는 그의 혈통을 추적합니다. 히자즈에 있는 아랍인들은 바니 하림(전쟁의 부족)이라고 불리며, 그들의 시초는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팔그레이브는 그들의 언어가 1400년 이상 변하지 않았고 꾸란이 쓰였을 때 부터 (예수 탄생 후 610년) 지금까지 순수하게 유지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동방 종교 제도의 연속성에 대한 훌륭한 증거입니다.

사실 무슬림 이민자들이 서방에 가져온 가장 큰 자산은 그들의 노동력이 아니라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슬람교입니다. 많은 이슬람 성원과 센터들이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개종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다, 귀의하다’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슬람) 하는 것으로 태어났고 그것이 모든 인간들의 본성인데 부모나 공동체 사회에 의해 그가 유대교, 기독교, 그밖에 다른 종교나 무신론으로 개종했던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은 기독교처럼 특별한 선교단체를 만든다거나 종교적 조직이 있지도 않고 성직자가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이슬람이 칼에 의한 전파가 아니라 단순히 개인의 선택에 의해 전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계 인구는 1934년부터 1984년까지 136퍼센트가 증가했고, 기독교는 47퍼센트, 이슬람교는 235퍼센트가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들은 아래의 서적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he Plain Truth, February 1984, in its fiftieth anniversary issue, quoting from The World Almanac and Book of Facts 1935, and The Reader's Digest Almanac and Yearbook 1983.)

기독교인: 만약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까지 이 세 종교가 모두 하나의 동일한 창조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왜 서로 다른 것인가요?

무슬림: 아담부터 무함마드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지자들(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를 베푸시길)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완전한 복종이라는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보내졌습니다. 아랍어로 복종은 “이슬람”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또한 평화를 의미하기도 하며, 창조주와 그분의 피조물 사이의 평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슬람이라는 이름은 유대교와 기독교라는 이름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것입니다.

꾸란 5장 3절에 보면: {오늘 너희를 위해 너희의 종교를 완성했고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였으며 이슬람을 너희의 종교로 만족케 하였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슬람을 언급하셨습니다. 반면 성경을 보면 ‘유대교’라는 이름도 ‘기독교’라는 이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으며 성경 단어집을 찾아봐도 존재 하지않는 단어들입니다.

실제로 어떤 유대 선지자도 ‘유대교’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결코 ‘기독교’를 세우겠다고 주장하지 않으셨고,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는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난지 오래된 서기 43년경에 신약성경에서 그분이 아닌 다른 자에 의해 세번만 언급되고, 안티오키아에서 이교도들과 유대인들에 의해 처음 언급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제자들이 안디옥(안티오키아)에서 처음 그리스도인(기독교인)이라 불

렸다.))

나중에 아그리파 2세가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그립바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그들의 그리스도인(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그들의 적들이 처음 지어준 것입니다.

이후 마침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통해 신앙인들을 위로하는 편지를 씁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반면 지구상 최초의 '무슬림'은 무함마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었고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였습니다. 하지만 삶의 방식으로 이슬람은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과 노아 같은 다른 선지자들에게 알려졌고, 이후 모든 인류에게 삶의 방식으로 이슬람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무슬림' 일 수 있을까요? 그는 유대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슬림: 유대인이요? 누가 그렇게 주장하였나요?

기독교인: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성경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겠지요.

무슬림: 성경 어디에 그가 유대인이었다고 쓰여 있는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대신 도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을 읽어보십시오.

기독교인: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아들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바빌로니아) 우르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길을 떠나다가 하란에 이르러 거기 에다 자리잡고 살았다.))

무슬림: 그래서 칼데아(칼디스의 우르)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첫째로 칼디스의 우르가 지금의 이라크의 일부인 메소포타미아에 있었기 때문이며, 둘째로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유다가 존재한 후에야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과 5절을 더 읽어 보십시오.

기독교인: ((그래서 아브람은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났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75세였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그리고 하란에서 얻은 모든 재산과 종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무슬림: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으로 이민을 갔고 성경은 창세기 17장 8절에서 그가 이방인임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네가 지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니 가나안 땅 전체가 네 후손들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제 창세기 14장 13절을 읽어보십시오.

기독교인: ((그때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와서 그 모든 사실을 말해 주었다. 이때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숲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마므레와 그의 형제 에스골과 아넬은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자들이었다.))

무슬림: 성경 자체가 아브라함을 유프라테스 강 반대편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의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유대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또한 켄의 자손인 에베르와 관련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성경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과 씨름한 후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기독교인: ((네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으므로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무슬림: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자손은 열두 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유다는 원래 유다의 자손만 유대인이라고 부르도록 '유대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진짜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6장 16절에서 20절을 읽어보세요.

기독교인: ((레위의 아들인 게르손, 고핫, 므라리는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며 레위는 137세까지 살았다. 그리고 게르손의 아들인 립니, 시므이, 고핫의 아들인 아르람, 이스할, 헤브론, 웃시엘도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며 고핫은 133세까지 살았다. 또 므라리의 아들인 마흘리와 무시도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었다. 이상은 세대별로 기록된 레위 집안들이다. 아르람은 자기 고모 요게벳과 결혼하였는데 그녀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르람은 137세까지 살았다.))

무슬림: 그래서 모세는 유다의 자손이 아니라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법을 준 사람" (토라는 법) 이었습니다.

기독교인: 당신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된 것인가요?

무슬림: 우리는 꾸란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꾸란의 맥락으로 성경을 설명하고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편견을 고칠 수 있습니다. 꾸란은 마지막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성서로 변형되거나 변질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약속입니다.

꾸란 2장 2절: {의혹의 여지가 없는 이 성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한 길잡이라.} 그리고 꾸란 15장 9절: {하나님이 실로 그 메시지를 계시했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하리라} 이 구절은 인류에 대한 도전입니다. 불신자들이 이 구절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비참하게 실패하였고, 이 꾸란은 1400년 이상 지났고 단 한 단어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꾸란 구절에 언급되어 있듯이 그분은 이 책을 지켰습니다.

반대로 다른 모든 성서(토라,시편,복음서)는 원본에서 추가, 삭제 또는 변경된 형태로 변질되었습니다.

기독교인: 성경서 나오는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해 꾸란에서는 어떻게 말하나요?

무슬림: 꾸란 3장 6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서의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어찌하여 이브라힘(아브라함)에 관해 논쟁하는가? 타우라(토라)와 인질(복음)은 오직 그(이브라힘) 이후에 내려졌을 뿐이라. 그러니 그대들은 이성을 쓰지 않겠는가?}

그리고 꾸란 3장 67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브라힘(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었으며 기독교인도 아니었노라. 그러나 그는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무슬림(복종하는 자)이었으며 하나님께 대등한 존재를 두는 자들 중의 하나가 아니었노라.}

꾸란 2장 140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대들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과 (이삭의) 손자들이 유대인이거나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것인가? 그대는 말하라 : '누가 더 잘 아는가, 그대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자신이 가진 하나님으로부터의 증언을 감추는 자, 그보다 더 부당한 자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유다에서 따온 것이고 기독교인(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예수가 떠난 지 한참 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인: '알라'라는 이름을 들으니 기분이 이상합니다. 만약 영어를 사용한다면 'God'(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슬림: 네, 물론입니다. 사실 '알라'라는 이름이 비무슬림들에게는 이상해 보이지만, 이 이름은 아담 이후 무함마드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선지자들(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평화를 베푸시길)이 사용해 왔습니다. 이 이름은 아랍어의 두 단어인 '알+일라', 즉 'The God'의 축약어 입니다. 그리고 '알라'라고 불리는 단어는 사실 '알라후'이며, 히브리어에서의 '엘로하'와 가까운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라하'라는 단어는 예수가 사용했던 하나님을 뜻하는 아람어, 즉 "알라하"와 "엘로

힘”(브리태니커 백과사전 1980 참조)에 더 가깝게 들립니다. 따라서 ‘알라’라는 이름이 비무슬림에게는 이상하지만, 아담에서 무함마드에 이르는 모든 선지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이슬람(신에 대한 완전한 복종)을 전파하고 “알라후”라는 단어는 가장 절대적인 존재의 개인적인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한편 아랍어 ‘알라후’(알라의 더욱 정확한 아랍어 표기)는 복수형도 없으며 영어의 God(남신)나 Goddess(여신)처럼 성별을 나타내는 형식도 따로 있지 않습니다.

많은 영어권 기독교인들의 경우 예수를 God(하나님)과 동일시 여기기 때문에 ‘God’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창조자’라는 단어조차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들에게는 ‘알라’라는 단어만 어색할 뿐 아니라 무슬림들이 알라를 경배하며 우두(청결의식)를 하고 바닥에 엎드려 절하고 금식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이상하다고 느껴지지만 사실 모든 예언자들에게는 그것들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 하기 전 청결의식인 우두(얼굴과 팔을 씻고 머리를 쓰다듬고 발도 씻음)는 현대 기독교인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성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무슬림들과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것들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1절~32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었는데,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그렇게 씻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바울의 경우 예수의 가르침을 많이 바꾸었지만 사도행전 21장 26절에서 볼 수 있듯이 청결의식에 관해서 존중을 보이며 성서의 전통을 따르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튿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의식을 행하고 성전으로 들어가 정결 의식이 끝나는 날과 각 사람이 예물 바치는 날을 알려 주었다.))

무슬림 여성들은 예배를 할때에 그녀들의 머리를 가립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성경에도 나와있는데도 히잡을 비난하곤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6절 그리고 13절을 보십시오. ((또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말씀을 전하면 그녀의 머리인 제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쓰지 않은 여자의 머리는 민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거든 머리를 깎아 버리십시오.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된다면 머리에 무엇을 쓰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무슬림들은 이전의 선지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반절을 하고 신발을 신지 않고도 바닥에 엎드려 부복합니다. 시편 95장 6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허리를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호수아 5장 1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야훼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이제 온 것이다." 이 대답을 듣고 여호수아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물었다. "내 주여, 당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열왕기상 18장 42절도 보십시오: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엘리야는 갈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민수기 20장 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나 만남의 장막 문에 이르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야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3절입니다: ((“아브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다음은 출애굽기 3장 5절과 사도행전 7장 33절에 공동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메카에 있는 카으바를 도는 무슬림들의 성지순례(하즈)는 많은 선지자들, 이스라엘 선지자들조차 실시 했었다는 것을 알면 기독교인들은 매우 놀랄것입니다.

기독교인: 저는 성경에서 성지순례나 카으바에 대해서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무슬림: 이는 여러 차례 명확하게 언급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냥 간과하곤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장소에서 메카의 카으바와 같은 '미스바'라고 불리우는 장소들이 여러 군데 나오게 됩니다.

1. 야곱은 파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환영을 보고 다음날 아침 주님의 집이라 부르는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창세기 28:18~19 참고)
2. 몇 년 후 같은 야곱은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창세기 35:4, 14~15). 야곱은 베델에 가기 전에 이상한 신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나중에 선지자 무함마드도 메카의 카으바 주변의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3. 또 다른 기둥은 야곱과 그의 장인 라반(창세기 31:45~49)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의 친척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로 쌓고 그 곁에서 음식을 먹었다.

라반은 그 무더기를 '여갈-사하두다'라 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하였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 돌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물이 될 것이다' 하였으므로 그 곳이 갈르엣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가 또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지켜보시기 바란다' 하였으므로 그 곳을 미스바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4. 입다와 암몬은 서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입다는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승리하면 자신을 맞이하러 나오는 첫번째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승리했고, 그곳에서 딸을 산채로 불태워 주님께 바쳤습니다. (사사기 11:29~39)
5. 이스라엘 열한 지파의 검객 40만명이 미스바의 주님 앞에서 벤야민 지파를 멸망시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사사기 20, 21)
6. 이스라엘 자손은 사무엘의 지휘 아래 미스바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승리하면 우상을 파괴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사무엘상 7)
7.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되었을 때 이스라엘 온 나라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사무엘상 10)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 무함마드가 태어난 곳,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가장 오래된 성스러운 도시 중 하나인 메카에 세운 미스바를 제외하고는 다른 미스바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로 무슬림들이야말로 모든 선지자들의 추종자들입니다. 사실 이것을 제외하고도 성경에서 무슬림들과 이슬람 그리고 무함마드에 대해서 많은 흔적들과 예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자 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겠지요?

기독교인: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믿는 것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두 종교에 대해서 더욱 알아보고 싶습니다. 사실 무슬림이 쓴 책을 읽은 후 가끔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무슬림: 그것이 당신의 종교 생활에 영향을 끼쳤나요?

기독교인: 네, 저는 예전처럼 교회를 정기적으로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슬림이 쓴 책들을 몰래 읽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무슬림들에게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물어봤지만 아직은 만족스럽게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의지할 수 있고,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고, 과학적인 접근도 허용하며 맹목적으로 믿지 않아도 되는 믿음을 찾고 있습니다.

무슬림: 당신의 생각들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무슬림이 되라고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해답을 드리기 전에 당신이 정말 진실을 배우는 데 관심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인: 당신의 말은 제가 원하는 것을 저는 믿을 수 있고 누구도 저에게 다른 믿음을 믿으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무슬림: 네, 꾸란은 종교에 강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그렇다면 왜 무슬림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하는 건가요?

무슬림: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라고 요청하듯이, 우리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은 물론, 유대인들과 전 인류에게 무함마드를 마지막 선지자로서 받아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대신해서 꾸란의 한 구절이라도 전하도록 하십시오.”(‘알-부카리’가 수집한 하디쓰, no.3274)”

이사야 21장 13절에서 보면 “이것은 아라비아에 대한 말씀이다. 아라비아 사막에 머물고 있는 드단의 대상들아”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새로 조작한 번역으로 훨씬 이전에 쓰여진 킹제임스버전에서는 “The burden upon Arabia”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는 아랍 무슬림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그것은 이슬람을 전파해야 함을 말합니다.

또한 이사야는 그가 본 계시에서 당나귀와 낙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가 쌍쌍이 말을 타고 오는 사람들이나 나귀와 낙타를 타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 귀를 기울이도록 하라”

당나귀에 관해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예수(요 12:14, 마태 21:5)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낙타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예수 이후 약 600년뒤 온 사람은 무함마드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드릴 수 없다면 예언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과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인: 당신의 설명은 성경을 좀더 주의 깊게 검토하도록 자극하는거 같습니다. 당신과 더 많은 논의를 하고 싶어지네요.

무슬림: 네, 만약 당신이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 다음 내세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세는 이 세상보다 더 훌륭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욱 물질주의적이고 세속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만나서 편견없이 솔직하게 우리 종교의 차이점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합시다.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기독교인: 방금 전 당신이 낙타와 관련된 구절을 언급하시면서 그것이 무함마드라고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관한 예언이 실제로 성경에 나오나요?

무슬림: 물론입니다.

기독교인: 구약성경에 나오나요 아니면 신약성경에 나오나요?

무슬림: 두 군데 다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나 예수의 신성,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는것이나 원죄와 속죄의 교리를 여전히 믿는다면 진실을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들은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사야가 사람들이 헛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들이 만든 교리를 믿는다고 예언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만든 법을 마치 내 교훈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으니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 (마태복음 15장 9절)

성스러운 성경

무슬림: 성경이 성스러운 것을 확신하시나요?

기독교인: 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무슬림: 그렇다면 누가복음 1장 2~3절을 읽어보세요.

기독교인: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2~3절)

무슬림: 누가는 자신이 목격자가 아니며 그가 수집한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나 영감을 받은 것도 아니라 목격자로부터 얻은 것이라 말했는데 그래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전히 믿으시겠습니까?

기독교인: 아마도 이 부분만 신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슬림: 역사에 따르면 성경은 변형된 것이 사실입니다. 개정 표준판(1952년과 1971년), 신미국 표준 성경, 신대륙 번역본은 그 이전 킹 제임스 버전에 나오는 특정 구절들을 삭제했습니다. 리더 스다이제스트는 구약성경의 50%, 신약성경은 약 25%를 삭제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더욱 작게 잘라버리고 싶어했습니다. '성스럽다'라는 것은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기독교인: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오류를 말씀하시나요?

무슬림: 한 구절은 어떤 사람이 50세에 사망했다고 하고, 다른 구절은 같은 사람이 60세에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문장은 모두 맞을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 아니요, 한가지만 옳을 수도 있고 두가지 모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슬림: '성스러운' 책에 상반되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면 여전히 성스러운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 성스러운 경전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서 실수나 상충되는 구절을 찾을 수 없어야 합니다.

무슬림: 그렇다면 신성한 것이 아니지요.

기독교인: 맞습니다. 이 경우 성스러움은 사라집니다.

무슬림: 그렇다면 백퍼센트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실수의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기독교인: 기록의 실수이거나 필경한 사람이 삭제 혹은 추가 한 고의적인 변경일 수도 있겠네요.

무슬림: 성경에 상충되는 구절이 있다면 여전히 성경이 신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독교인: 저는 성경이 신성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상충되는 구절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슬림: 그 안에는 상충되는 구절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구약성경에서요? 아니면 신약성경에서요?

무슬림: 두군데 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천7백? 아니면 7천?

(사무엘하 8장 4절)

그 전투에서 다윗은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생포하고 전차 100대의 말을 제외한 나머지 말들은 모조리 발의 힘줄을 끊어 버렸다.

(역대상 18장 4절)

그 전투에서 다윗은 전차 1,000대를 빼앗고 **마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생포했으며 전차 100대의 말을 제외한 나머지 말들은 모조리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2] 도이 또는 도우? 하닷에셀 또는 하다데젤? 요람 또는 하도람?

(사무엘하 8:9~10)

하맛 왕 **도이**는 다윗이 **하닷에셀**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축하하기 위해 자기 아들 **요람**을 보냈다. 이것은 하닷에셀과 도이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윗에게 은과 금과 놋 제품을 선물로 보냈다.

(역대상 18:9~10)

하맛 왕 **도우**는 다윗이 소바 왕 **하다데젤**의 전군을 무찔렀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 **하도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문안을 올리고 하다데젤을 쳐부순 것을 치하하게 하였다. 하다데젤은 도우의 공격을 받는 왕 가운데 하나였다. 하도람은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든 온갖 기물들을 가지고 왔다.

[3] 병거 칠백대 or 병거를 모는 칠천명? 마병 사만명 or 보병 사만명?

사무엘하 10:18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칠백 대**와 **마병 사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역대상 19:18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병거를 모는 칠천 명**과 **보병 사만 명**을 죽이고, 소박 사령관도 쳐서 죽였다.

[4] 22살? 아니면 42살?

열왕기하 8:26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이십이 세**라 예루살렘에서 일 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역대하 22:2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사십이 세**라 예루살렘에서 일 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5] **다그몬 사람 요셉밧세벳 or 학몬 사람 야소브암? 팔백명 or 삼백명?**

사무엘하 23:8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는 다그몬 사람 요셉밧세벳**인데, 그는 세 용사의 우두머리이다. 그는 **팔백 명**과 싸워서, 그들을 한꺼번에 쳐죽인 사람이다.

역대상 11:11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브암**인데, 그는 세 용사의 우두머리이다. 그는 창을 휘두르며 **삼백 명**과 싸워, 그들을 한꺼번에 쳐죽인 사람이다.

[6] **열여덟살 or 여덟살? 석달 or 석달 열흘?**

열왕기하 24:8

여호야킨은 왕이 되었을 때에 **열여덟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느후스다는 예루살렘 출신인 엘라단의 딸이다.

역대하 36:9

여호야킨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여덟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7] 사탄이 다윗의 주님이라는 말인가? 성경의 모욕

사무엘하 24:1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역대상 21:1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8] 사울의 딸 미갈은 자식이 있었나 없었나?

사무엘하 6:23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사무엘하 21:8

그 다섯 외손자는 사울의 딸 **미갈(메랍)**이 므홀랏 사람 바실래의 아들인 아드리엘에게서 낳은 자들이었다.

오래된 영어 번역 킹제임스버전에서는 미갈(Michal)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후 새로운 번역에서 메랍이라고 조작하였으며 이후 한국어 성경에서도 메랍(Merab)으로 따라 조작되었다.

기독교인: 저는 이런 것을 보지를 못했었네요. 이런게 더 많이 있나요?

무슬림: 아직 더 들어보고 싶으신가요? 지금까지 예시들만으로도 충분히 성스럽다는 것은 부정되

지 않았나요? 창세기 6장 3절을 보세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죽어야 할 육체이므로 내 영이 영영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그들에게 120년 동안의 여유를 주겠다'

하지만 노아가 죽었을 때 몇 살이었나요? 백이십살이 넘었습니다. 창세기 9장 29절을 참조하세요: "홍수 후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에 죽었다."

일부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것이 인간의 최대 나이가 120세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20세 안에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홍수 당시 노아의 나이는 600세(500+120)였기 때문에 이마저도 맞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가 600살이었다고 나옵니다.

아래 두 구절을 잘 공부해 보십시오.

(창세기 5:32) 노아는 오백 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창세기 7:6) 땅 위에서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육백 살 되던 해이다.

성경에 나오는 모순 중에는 삼위일체, 예수의 신성, 신의 아들, 원죄와 속죄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거짓 신들에 대한 숭배, 근친상간, 강간, 간통을 저질렀다며 거짓이야기를 만들어 선지자들을 따르지 않도록 하고 그들은 전혀 중요한 이들이 아니라고 믿게 만드는 꼼직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독교인: 그런것들은 성경 어디에 나오나요?

무슬림: 성경에 따르면 노아는 다 큰 아들들 앞에서 알몸이 될 정도로 술에 취했다고 합니다: "셈과 야벳은 겹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 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창세기 9:23-24)

선지자 솔로몬이 거짓 신들을 숭배했다며 조롱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

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 두 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열왕기상 11:9~10)

형인 모세와 함께 파라오에 대적인 선지자 아론에 대해서는 그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그들이 그것을 숭배케 하였다고 말도 안 되게 조작했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너희의 신이다." (출애굽기 32:4)

선지자 롯이 그의 두 딸과 근친상간 했다는 주장의 내용도 성경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롯의 두 딸은 자기들의 아버지를 통해서 임신하게 되었다." (창세기 19:36)

그리고 다른 선지자는 간통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다윗은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여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런 다음 그 여자는 부정해진 몸을 씻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후에 그 여자는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사람을 보내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다." (사무엘하 11:4~5)

저의 질문은, 어떻게 선지자 다윗을 간통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만들고 거기다 예수가 그 사람으로부터 계보가 이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는것인가요? 정말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성경 자체로도 모순이 됩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사생아는 야훼의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 후손은 십 대에 이르기까지도 야훼의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또 다른 주장으로는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의 여형제 다말을 강간했다는 근친상간 주장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그녀를 덮쳐 강간하고 말았다." (사무엘하 13: 14)

압살롬이 다윗의 첩들을 강간한 또 다른 복수의 강간은 사무엘하 16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추종자들은 압살롬을 위해 궁전 옥상에 천막을 쳐놓았으며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데서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였다."

유다와 그의 며느리의 또 다른 근친상간: '담보물로 무엇을 주면 되겠느냐?' '끈 달린 당신의 그 도장과 당신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유다는 그것들을 주고 그녀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며 그녀는 그를 통해서 임신하게 되었다. (창세기 38:18)

유대인과 무슬림은 종종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무슬림도 감히 유다, 다윗, 예수 등 선지자들에게 강간, 간통, 근친상간 또는 매춘을 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사람들을 인류를 인도하도록 보낸

다고 생각하시나요?

기독교인: 아니요. 하지만 당신은 성경을 안 믿으시나요?

무슬림: 우리는 모든 성서들을 믿지만 원래의 원본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에 경고자들로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들 중 일부는 특정 민족만을 위한 지침으로 경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후프는 아브라함이, 토라는 모세가, 자부르(시편)는 다윗이, 인질(복음서)은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경전들 중 어느 것도 원래 그대로 보존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의 일환으로 그분께서는 무함마드를 모든 선지자들의 봉인으로 하여 꾸란을 계시해 주셨고 어느 곳에서나 어느 민족에게나 심판의 날까지 모든 시대에 꾸란을 지침서로 삼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길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하시자 (마태복음 15:24)

비슷한 구절이 또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1:21)

그는 자신이 종교를 변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기 위해 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17-18)

기독교인: 하지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무슬림: 이는 마태복음 15장 24절과 마태복음 1장 21절과 모순이 됩니다. 둘째로는 마태복음 16장 9절~20절은 많은 부분 성경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신미국표준성경은 이 부분을 괄호 안에 넣고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달았습니다: "가장 오래된 모든 필사본은 9절에서 20절까지 생략되어 있음."

또한 여호와의 증인들이 사용한 성경 신세계 번역본에서도 특정 고대 필사본에 있어 마가복음 16장 8절 다음에 일부 구절이 생략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 표준 버전에서는 다음과 같은 각주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고대 필사본의 대부분은 8절을 마지막으로 끝입니다.” 이 의미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나오는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인: 하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

무슬림: 여기서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의미하는 번역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15:24과 마태복음 1:21과 모순이 됩니다. 신미국 표준 성경과 성경 신세계 번역에서는 ‘모든 민족’이 아니라 ‘모든 부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독교인: 저는 이제 그것의 신성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슬림: 우리가 차이점들을 더 논의하고 나면 이슬람의 정확성을 인정하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삼위일체 교리

무슬림: 당신은 여전히 삼위일체를 믿습니까?

기독교인: 물론입니다. 요한1서 5장 7~8절에 적혀있습니다.

무슬림: 성경에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 각기 내용이 다르고 변경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그것이 성경이 오류가 많으며 모순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1611년에 승인된 킹제임스 버전에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항상 주장하는 가장 최근에 번역된 책들을 보시면 내용이 또 다르실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1서 5장 7~8절)

성경은 여러분들이 알수 없는 여러 이유들로 변경되고 조작되고 또 변형됩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번역자들이 보고 번역한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 원본도 아니고 사본도 아닌 그리스어로 기록된 것들입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그리스어를 사용하지 않았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도 삼위일체를 가르쳤거나 언급한 적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삼위일체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으며 성경에는 삼위일체를 받아들일 근거나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하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는 구절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의 증거가 아닌가요?

무슬림: 아니요. 만약 세 사람이 함께 앉거나 식사를 한다면 한 사람이 되기라도 한다는 것인가요? 이 구절도 잘 읽어보시면 각기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일 뿐이지 세 이름을 말했으니 그

셋이 하나다 라는 논리의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삼위일체 교리는 예수께서 알려준 것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 아타나시우스가 밝힌 것이고 (예수께서 떠난지 3세기가 훨씬 지난 후) 서기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채택되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로마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이교도 사상인 삼위일체 교리가 영향을 준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의 태양신을 위하여 기존 토요일이던 안식일은 일요일(주일)로 변경되었으며 태양신 미트라의 생일인 12월 25일이 예수의 생일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이로써 기독교인들은 그날을 크리스마스라 부르며 트리를 만들어 기념하지만 이 역시 이교도인들의 나무 숭배에서 온 것으로 성경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방 민족의 길을 따르지 말아라. 이방 민족이 하늘의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여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방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다. 그들은 숲에서 나무를 베어 목공의 도구로 다듬어서 거기에 은과 금으로 장식하고 그것을 못과 망치로 고정시킨다. 그들이 이렇게 해서 만든 우상은 들판의 허수아비처럼 말도 못하고 걸어도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운반해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 (예레미아 10:2~5)

기독교가 예수의 원래 가르침에서 멀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종교를 원래대로 돌리시고 꾸란으로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의 경우 로마의 달력을 도입하였고 돼지고기가 허용되었으며 바울에 의해 할례가 폐지되기도 하였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갈라디아서 5:2)

꾸란은 5장 73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셋중의 하나라 (삼위일체를) 말하는 그들은 분명 불신자라 하나님 한분 외에는 신이 없거늘 만일 그들이 말한 것을 단념치 않는다면 그들 불신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가해지리라.

당신은 예수께서도 가르치신 적이 없는 삼위일체를 여전히 믿으시나요?

기독교인: 하지만 요한복음 1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는 하나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무슬림: 지금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읽어보세요.

기독교인: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무슬림: 여기에 따르면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이며 제자들 역시 예수와 하나님 안에 하나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가 하나님 안에 계시기에 곧 하나님이시라면, 제자들 역시 예수와 같이 하나님 안에 계시니 제자들도 하나님인 것 아닌가요? 만약 성자, 성부, 성령 그리고 제자들까지 모두 하나가 된다면 이것은 세단위의 삼위일체가 아니라 열다섯 단위의 십오위일체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기독교인: 하지만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무슬림: 그 구절의 앞뒤에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보십시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14:8~9)

이 구절을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빌립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냐고 물었는데 그것은 말그대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의 피조물들을 보고 찬양하며 믿는 것입니다. 태양과 달, 우리가 볼수 있는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예수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직접 나를 증거하셨다.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으며” 이 명백한 구절을 보고서도 아직 이해가 안되십니까? 그의 말씀대로 어찌 영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인 것이며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분만이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며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찬양합시다. 아멘.” 무슨말이 더 필요할까요? 바울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네요. 아무도 보지 못했고 볼수도 없는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며 눈에 보이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꾸란 6장 10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인식 할 수 있는 시각은 없으나 그분께서는 모든 시각을 인지하시노라. 그분은 자비와 아심으로 충만하심이라.”

기독교인: 솔직히 말해서 내용 자체는 충격적이긴 한데 제가 어린 시절부터 배운 것들을 부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슬림: 그렇다면 다음 질문들을 통해 삼위일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성령이란 무엇인가요?

기독교인: 성령은 성스러운 영이고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라고 인정하며 그것이 세 신이라고 말하는게 아니라 한 신이라고, 유일신이라고 배웁니다.

무슬림: 마태복음 1장 18절을 읽어보세요.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무슬림: 이를 누가복음 1장 26~27절과 비교해 보세요.

기독교인: 그 뒤로 여섯 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무슬림: 예수의 기적적인 탄생에서 마태는 성령을 언급했고 누가는 가브리엘 천사를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누구일까요?

기독교인: 이 경우에 있어서 성령은 가브리엘 천사겠네요.

무슬림: 하나님께서 성령인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으니, 하나님은 성령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단 말입니까? 아직도 삼위일체를 믿으시나요?

기독교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가브리엘 천사라면 예수님은.....

무슬림: 제가 도와드리지요: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자 선지자입니다.

기독교인: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한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무슬림: 정확한 대답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꾸란에 다 있습니다. 이전의 성서들이 변형된 부분들을 모두 바로잡았습니다. 이전의 모든 성서들에서 나왔었던 간단하면서도 빛나는 그 진리를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한분이시며 그분께는 어떠한 대등한 존재도 없으며, 선지자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과 모든 선지자들의 마지막 봉인은 선지자 무함마드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노아부터 모세와 예수, 무함마드(그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을 하는 것에 여전히 거부감이 드시나요?

기독교인: 저는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마음속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증조 부모님은 어떨까요? 저는 그들과 함께 하고싶은데요. 그들은 모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무슬림: 아브라함은 진리(이슬람)가 자신에게 도래하였을 때 그의 부모와 증조부모를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든 아들이든 남편이든 심판의 날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영혼도 다른 영혼의 짐을 짊어 질 수 없습니다. 꾸란 17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정도로 가는자 그 자신을 위해 가는 것이며 방화하는 자 누구 나 스스로를 방황케 할 뿐이라 짐 진자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없으니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낼 때까지 별을 내리지 않노라”

진리가 당신에게 도래하였고 이제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인: 제가 이슬람과 기독교를 동시에 받아드릴 수는 없을까요?

무슬림: 종교에는 강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두 신앙을 동시에 가지겠다는 것은 아직 당신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경우 꾸란 4장 150~152에 나와 있듯이 당신은 여전히 불신자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불신 하며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이간시 키려 하는 자들이 우리는 일부를 믿고 일부는 부정하나이다 라고 하며 그 종간의 길을 택하겠다 말하더라

실로 이들이야말로 불신자들이거늘 하나님은 이 불신자들에게 치욕스러운 별을 준비하시었노라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들을 믿고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구별치 아니한 그들에게는 보상이준 비되어 있나니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우리가 다른 문제들도 풀어간다면 당신이 저의 말에 동의하게 될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독교인: 제가 당신의 말에 모두 확신한다고 했다고 가정한다면, 제가 완전히 헌신해서 종교에 전념하기 전에 신앙선언(샤하다)를 먼저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지내기 위해 샤하다를 하지 않고 그냥 내면에 간직할 수는 없나요?

무슬림: 성인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진실을 받아들이고 신앙선언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고 아무 이유 없이 이성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구분하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진리를 올바르게 세우고 선행에 있어 경쟁하며 악을 멀리하도록 창조하셨으며 심판의 날을 경고하기 위한 그분의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꾸란 구절들을 잘 읽어보세요:

그들은 서서도, 앉아서도, 누워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늘과 대지의 창조에 관하여 숙고하는 자들이라. “저희의 주님이시여! 당신께서는 아무 목적 없이 이것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신 당신이십니다! 그러니 불지옥의 벌으로부터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꾸란 3:191)

내가 그를 위해 두 눈과 혀와 두 입술을 두지 않았던가? 또한 나는 그에게 두 개의 가파른 길을 가리켜 주었노라. (꾸란 90:8~10)

내가 진과 인간을 창조함은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꾸란 51:56)

실로 하나님은 대지 위의 모든 것을 장식으로 두었을 뿐 이는 그들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훌륭한가를 시험코자 함이라 (꾸란 18:7)

예수의 신성에 대한 교리

무슬림: 예수는 하나님인가요?

기독교인: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 따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무슬림: 우리는 성스러운 경전에 모순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데에 동의했습니다. 성경에 상충되는 두 구절이 있다면 하나만 참이거나 두 구절 다 틀릴 수 있으나, 둘 다 옳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예수는 곧 하나님이며, 그렇다면 하나님은 몇분이신가요? 최소한 두분이 되겠네요. 이것은 성경의 많은 구절과 모순됩니다:

그러니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그리고 마음에 새겨두어라. 야훼 바로 그분이 위로 하늘에 계시고 아래로 땅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밖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신명기 4:39)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야훼 한 분뿐이시다. (신명기 6:4)

너희가 바로 나의 증인이다. 야훼의 말이다. 너를 뽑아 내 종으로 세운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요, 나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려는 것이다. 손으로 빚은 신이 나보다 앞서 있을 수 없고 후에도 있을 수 없다.

나, 내가 곧 야훼이다. 나 아닌 다른 구세주는 없다.

(이사야 43:10~11)

이스라엘의 임금, 그의 구세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시작이요, 내가 마감이다. 나 밖에 다른 신이 없다.

(이사야 44:6)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을 창조하신 그분, 하느님이신 그분, 땅을 빚어 만드신 그분, 땅을 단

단하게 다지신 그분, 땅을 황무지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빚어 만드신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훼다. 누가 또 있느냐?"

(이사야 45:18)

이사야 45장 18절에서 보실 수 있듯이 오직 하나님이 창조주였으며 예수는 물론이고 다른 어떤 누구도 창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신명기 4장 35절과 출애굽기 8장 10절, 사무엘하 7장 22절, 열왕기상 8장 23절, 역대상 17장 20절, 시편 86장 8절, 시편 89장 6절, 시편 113장 5절, 호세아 13장 4절, 스가랴 14장 9절 또한 읽어야 합니다.

기독교인: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구약성경에 있는 구절들입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말들이 있나요?

무슬림: 물론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마가복음 12 장 29 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고린도전서 8 장 4 절도 보십시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 장 5 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도 한 분이시니 그분이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1 장 1 절이 맞고 다른 모든 구절이 틀렸다고 말하거나 그 반대로 말해야만 하겠네요.

기독교인: 결론을 선택하기가 힘듭니다..

무슬림: 그럼 성경에서 예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과 일치하는 부분을 꾸란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께서는 꾸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번 언급됩니다. 꾸란 3 장 39 절을 보시면: 이에, 그가 선 채로 경배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천사들이 그를 부르더라. "실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야흐야(요한)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니, 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을 확증하는 자이며 고귀한 자로서 여성을 접촉하지 않는 자이며 선량한 자들에서 나온 선지자이라."

꾸란 3 장 45 절: 천사가 말하니 "마르얌(마리아)이여! 실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그분으로부터의 말씀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시노라. 그의 이름은 '마르얌의 아들 메시아 이사(예수)'이며, 현세와 내세에서 명예로운 자로서 (하나님께) 가까워진 자들 중의 하나라."

두 구절 모두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리며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께서 "있으라" 라고 하신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고린도전서 3 장 23 절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1 장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시이다"가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요한복음의 저자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인: 두 경전 모두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슬림: 예수께서 마리아의 자궁에서 정자도 없이 창조된 것은 꾸란 3장 47절에 나와 있듯이 '있어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말하길 "저의 주님! 그 어떤 사람도 저를 만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에게 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분(하나님)께서 말씀하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창조하시노라. 그분께서 어떠한 일을 결정하시면 그것에게 '있어라'라고 말하시니 그것이 있게 되노라."

기독교인: 예수님은 성령으로 가득 차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무슬림: 하지만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또 있다면요?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인건가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디모데후서 1장 14절, 누가복음 1장 41절도 똑같이 나와 있으니 읽어보십시오.

기독교인: 하지만 예수님은 어머니의 뱃속에 계실 때부터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무슬림: 그것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 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네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기독교인: 하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셨습니다.

무슬림: 그것도 엘리사와 엘리야가 이미 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보리빵 스무 개와 옥수수 이삭 몇 개만으로 백명을 먹였습니다.

열왕기하 4장 41~44절을 읽어 보세요: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 오라고 하여, 그 밀가루를 솥에 뿌린 뒤에, 이제는 먹어도 되니 사람들에게 떠다 주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니 정말로 솥 안에는 독이 전혀 없었다.

어떤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 왔다. 그런데 맨 먼저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 스무 덩이와, 자루에 가득 담은 햇곡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왔다. 엘리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하였더니,

그의 시종은 백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그것을 어떻게 내놓겠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엘리사가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그것을 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으니,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을 보시면 또 다른 기적도 있습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빗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 주시오. 집 안에 무엇이 남아 있소?"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 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 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 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

으로 옮겨 놓으시오."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이 가져 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그릇마다 가득 차자,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뿐만 아니라 엘리야 역시 비슷한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16절을 읽어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 주실 때까지, 그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기독교인: 하지만 예수님은 나병 걸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무슬림: 마찬가지로 엘리사가 이미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14절을 읽어보십시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다

기독교인: 하지만 예수님은 봉사를 다시 볼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무슬림: 그것 역시 엘리사가 했던 일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 주셨다.

열왕기하 6장 20절: 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서자, 엘리사가 "주님,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눈을 열어 주셨다. 그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사는 눈을 멀게도 하였습니다: 시리아 군대들이 산에서 엘리사에게로 내려올 때에, 엘리사가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이 백성을 쳐서, 눈을 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서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셨다.

기독교인: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무슬림: 마찬가지로 엘리야 역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열왕기하 4장 34절: 아이 위에 올라 엮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엮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심지어 성경에 의하면 엘리사의 뼈를 만져도 시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1절: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 떼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기독교인: 하지만 예수님은 물위를 걸었습니다.

무슬림: 모세는 건지 않고도 단지 손만 뻗어서 기적을 행했고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오랜시간동안 물벽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22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기독교인: 하지만 예수님은 악마들을 쫓아내실 수 있습니다.

무슬림: 그부분은 예수께서 직접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2:27, 누가복음 11:19)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의 말대로 악마들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22)

따라서 그런걸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놀라운 일은 선지자들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 하지만 엘리야와 알리사는 주님께 기도를 함으로써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무슬림: 예수께서도 기적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면 그분은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이전의 선지자들, 제자들, 그리고 심지어 불신자들도 행했던

것입니다. 반면 예수께서는 불신이 있는 곳에서는 기적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을 보세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베풀 수가 없어서 병자 몇 사람에게만 손을 얹어 고쳐 주셨다.”

기독교인: 하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신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무슬림: 십자가에 대한 논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중에 그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 또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만난 적도 없는 바울이 한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8절)

마가복음 16장 9~20절에 나오는 부활의 구절도 많은 성경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제거되지 않았다면 작은 글씨로 인쇄하거나 두 괄호 사이에 해설과 함께 인쇄됩니다. 개정된 표준본, 신미국 표준 성경, 여호와 증인 성경 신세계 번역을 참조하세요. (실제로 한국에서도 일반적인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보는 한국어 성경책도 보시면 9절부터 20절이 모두 괄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거나 “내가 바로 너희의 주님이니 나를 경배하여라.”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기독교인: 아니요, 하지만 그는 인간이자 신입니다.

무슬림: 하지만 그가 그렇게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기독교인: 아니요.

무슬림: 실제로 그는 이사야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되게 믿어 헛수고 하며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만든 교리를 믿고자 한다고 예언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15 장 9 절)

현대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인간의 의해 만들어집니다. 삼위일체, 아들이로서의 하나님, 예수의 신성, 원죄와 속죄의 교리입니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발언을 보아도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거나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음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8 장 28 절)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높이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것만 말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 장 28 절)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한 분이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2 장 29 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마가복음 15 장 34 절)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누가복음 23 장 46 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마가복음 13 장 32 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는 사도이자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며 메시아로 불렸고 이후에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 자신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영원히 살지 않는 인간 여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낳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잠들지 않으시는데 예수는 잠을 잤습니다:

(시편 121 장 4 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강력하셔야 하는데 성경의 주장대로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께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숭배하였는데 어떻게 그 자신이 또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누가복음 5 장 16 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때때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를 드리셨다.

예수는 사탄의 시험을 40 일동안 받았습니다(누가복음 4:1~13), 하지만 야고보서 1 장 13 절에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더욱 더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인: 네, 저도 이해가 안 되네요. 하지만 우리는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슬림: 그런 태도는 성경 자체와 모순되지 않나요? 성경에서는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좋은 것을 꼭 붙드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 장 21 절)

기독교인: 네.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무슬림: 실제로 고린도전서 14 장 33 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결국 인간이 변형하여 만든 교리는 혼란을 야기할 뿐입니다.

신의 아들이로서의 예수에 관한 교리

무슬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요?

기독교인: 네.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을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시는 내용

을 보세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무슬림: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과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을 읽어보세요.

기독교인: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무슬림: 성경에 따르면 야곱(이스라엘)이 바로 그분의 첫번째 맏아들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14절 또는 역대상 22장 10절을 읽어보세요.

기독교인: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역대상 22장 10절)

무슬림: 예레미야 31장 9절을 읽으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올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것이요 나는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평탄한 시냇가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며 에브라임은 나의 장남이기 때문이다."

방금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이스라엘은 맏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맏아들은 누구 일까요? 이스라엘? 아니면 에브라임? 심지어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을 읽어보세요.

기독교인: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의 자녀이다.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지 마라.

무슬림: 평범한 사람들도 만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읽어보세요.

기독교인: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만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슬림: 모두가 만아들이라면 예수는 무엇인가요?

기독교인: 그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무슬림: 예수께서 태어나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했다는 것이 시편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이 대답하신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것을 내가 알리노라.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진정한 의미는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은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도 여러분이 보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세요.

기독교인: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무슬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의미하며, 예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성경 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영문 성경에서는 나의 아들들과 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음)

성경의 이러한 구절과 다른 구절들을 고려할 때, 예수를 문자 그대로 고유한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 간주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독교인: 하지만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입니다.

무슬림: 그렇다면 당신은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을 보시면: “가이난의 아버지는 에노스,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 셋의 아버지는 아담,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을 읽어보세요.

기독교인: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무슬림: 그는 누구인가요? 히브리서 7장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나 아담보다 더 독특합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 자신으로 고려하지 않으시나요?

기독교인: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세요?

무슬림: 무슬림들은 그를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 아무도 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무슬림: 네, 이는 간단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시

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을 읽어보세요.

기독교인: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앎이러라"

무슬림: 여기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기를 거부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또한 누가복음 9장 20~22절을 읽어보시면 예수는 그런 표현을 거부하고 제자들에게 그런식으로 자신을 언급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기독교인: 20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다시 물으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1절.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22절. 예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무슬림: 선지자이자 메시아였던 예수는 선생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아들, 주님,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자신으로까지 사람들에게 오해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을 읽어보세요: 그가 어느 날 밤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다른 구절들을 보아도 성경에서조차 예수를 선지자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 마태복음 21장 11절, 누가복음 7장 16절과 24장 19절을 모두 찾아보세요. 모든 곳에서 예수는 선지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을 읽어봅시다: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신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리고서 그는 곧 여러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여기서 보면 초기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유대교 회당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기독교가 예수의 원래 가르침에서 벗어나면서 교회가 세워져진 것입니다. 바울, 바나바, 이방인들은 신성 모독과 해악으로 회당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17장 18절, 21장 28절을 참조하세요.)

예수의 신격화가 진행되는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시고 요한 복음 1장 1절에 다달으면 조작이 완성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무슬림: 꾸란 4 장 157 절에 따르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해하였다 라고 그들이 주장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를 살해하지 아니하였고 십자가에 못박지 아니했으며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라 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은 의심이며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추측을 할 뿐 그를 살해하지 아니했노라”

당신은 여전히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으시나요?

기독교인: 네, 그는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무슬림: 우리 모두는 아무도 부활의 순간을 보지 못했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누워 있다고 생각한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단정지어 결론 지어버렸습니다.

제자들과 증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 그가 살아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꾸란에 나오는 대로 그가 애초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을 가능성은 충분한 것입니다.

기독교인: 그 증거는 어디에 있나요?

무슬림: 이 결론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을 살펴봅시다. 예수의 말씀과 제자, 기타 증인의 이야기 중 어느쪽에 더 비중을 두시겠습니까?

기독교인: 물론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 더욱 중요합니다.

무슬림: 이는 예수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 장 24 절을 보세요: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

기독교인: 하지만 예수님 자신은 죽은 자로부터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 장 46 절을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무슬림: 바울이 고린도전서 15 장 31 절에서 말했듯이 고난은 종종 성경에서 과장되고 '죽었다'고 표현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즉, 나는 매일 고통받는다)

그러다보니 여러 잘못된 번역을 보다보면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오후 3시 쯤에 예수님은 큰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기서 잔이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 2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의 저자인 누가에 따르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려는 예수의 기도는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나요? 누가복음 22장 43절: ((그러자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 주었다.)) 이는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분에게 크게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렸고 경건한 복종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기도가 들렸으며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긍정적인 방식으로의 응답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

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
 나라)) 의인의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 마태복음 7장
 7~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
 어 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
 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
 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성경에 근
 거하여 의인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기를 통곡으로 기도하였고 그분의 기도는
 받아들여졌을 것인데 어떻게 여전히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 3 예수의 다리는 로마 병사들에 의해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33: ((군인들
 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
 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죽었다고 말하는 군인들
 의 주장을 믿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들은 그가 무죄라 생각하여 구해주고 싶었던 건가
 요? 예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그의 피는 응고되어 옆구리가 뚫렸을 때 그의
 몸에서 피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가 나왔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요한복음 19장 34절: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 4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그분의 표적을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큰 바다 괴물의 뱃속에서 삼 주야를 지냈던 것같이 사람의 아들도 땅 속
 에서 삼 주야를 보낼 것이다.)) 3일 낮과 3일 밤에 있어서 전통 유대인의 밤이 언제 시작
 되었냐에 따라 여기에도 오류가 있으나 그것을 볼 필요도 없이 결과를 봅시다. 요나는
 고래의 뱃속에서 죽었나요 살았나요?

기독교인: 살았습니다.

무슬림: 고래가 요나를 뱃속에서 토해냈을 때도 여전히 살아 있었나요?

기독교인: 네

무슬림: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예수도 그가 예언한 그대로 십자가에서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5. 예수는 스스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일요일 이른 아침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는 정원사처럼 보이는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화 끝에 그녀는 그가 예수라는 것을 깨닫고 그를 만지고 싶어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예수는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여기서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한 것은 그의 몸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나는 아직 아버지에게 승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떠난 적이 없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무슬림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고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로 올라갔다고 믿습니다.

6.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주장이 제기된 후 제자들은 부활한 몸은 당연히 “영혼”이기 때문에 그가 육체적 예수가 아닌 영혼으로서 나타났다고 믿었습니다.

기독교인: 잠시만요, 부활한 시체가 ‘영혼’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무슬림: 예수 자신께서도 성경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이들은 천사들과 동등하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인: 그가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무슬림: 누가복음 20장 34~36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늘 나라에서 살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들은 부활한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 다음 예수는 그들이 손과 발을 만지게 하여 자신은 영혼이 아닌 그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확신시켜 주려 했습니다. 아직도 그들이 현실을 믿지 않자 예수는 그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여전히 먹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음식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43절을 읽어보세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쁘므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7- 만약 당신이 여전히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는다면 다음 성경 구절에 의하여 그는 거짓 선지자였으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 것입니다. 신명기 13 장 5 절: ((그런 선지자나 꿈 꾸는 자는 죽이라)) 신명기 21 장 22~23 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을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는 것은 예수의 예언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짓 예언자로 묘사하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처형이 죄의 구원 교리에 필요했고 결과적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십자가 처형을 믿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호세아 6 장 6 절의 성경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또한 마태복음 9 장 13 절에 나오는 예수의 가르침에도 반대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예수는 또한 마태복음 12 장 7 절에서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기독교인: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믿는 것인가요?

무슬림: 예수의 부활을 말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7 장 18 절을 보십시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몇몇 철학자들은 바울로와 토론을 해보고는 "이 떠버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기도 하고 또 바울로가 예수와 그의 부활에 관하여 설교하는 것을 보고는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선전하는 모양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예수를 본 적도 없는 바울은 부활이 자신의 주장임을 인정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 장 8 절: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심지어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최초로 선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9 장 20 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기독교 가르침이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기독교인: 하지만 마가복음 16 장 19 절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다고 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무슬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6 장 9 절부터 20 절까지는 특정 성경에서 말소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개정 표준판, 신미국 표준 성경, 여호와 증인 교회의 성경 신세계 번역 등. 예수께서 하늘로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신이라고 숭배한다면, 하늘로 승천한 다른 선지자들의 신성을 받아드리는 것은 왜 안하시는거죠?

기독교인: 그게 누구인가요?

무슬림: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2 장 11 절에서 12 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연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뿐만 아니라 에녹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해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창세기 5 장 24 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 장 5 절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속죄와 원죄의 교리

기독교인: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통한 죄의 구원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일부가 아니었나요?

무슬림: 이것은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오르지 서너 세기 후에나 교회에서 새롭게 받아들여진 속죄의 교리입니다. 이는 다음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경과 모순됩니다. 신명기 24 장 16 절: ((아버지가 자식의 죄로 죽임을 당해서는 안되며 자식이 아버지의 죄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만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예레미아 31 장 30 절: ((그러므로 신포도를 먹는 그 사람만 이가 시게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죽게 될 것이다.))

에스겔 18 장 20 절: ((죽어야 할 사람은 바로 범죄하는 그 사람이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의로운 자의 의에 대한 보상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에 대한 형벌도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담과 이브의 경우도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자신들이 책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슬람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하지만 이것들은 구약성경에 있을 뿐 입니다.

무슬림: 신약성경인 마태복음 7 장 1~2 절을 읽어 보세요. 예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무슬림: 또한 고린도전서 3 장 8 절도 읽어보세요.

기독교인: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지만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는걸요?

무슬림: 아이들이 죄 없이 태어난다는 것을 더 증명해 주길 원하시나요? 마태복음 19 장 14 절을 읽어보세요.

기독교인: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 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무슬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없이 태어나고 모든 아이들은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로마서 7 장 1~6 절을 보세요.

기독교인: ((형제 여러분,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살아 있을 동안에만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법적으로 그에게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남편이 살아 있는데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죄를 짓게 되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율법에 의해 일어난 죄의 욕망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었던 율법에 대하여 죽고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의한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무슬림: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신 것도 보지 못한 바울이 그분의 부활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복음이라고 명명한다면 이것을 믿으시겠습니까?

기독교인: 그게 어디에 쓰여져 있나요?

무슬림: 디모데후서 2 장 8 절을 읽어보세요.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오.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꼭 우리는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무슬림: 그러게 말입니다. 이슬람은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방식 그대로이며, 이교도의 신앙이나 미신에서 비롯된 우상숭배적 개념으로 오염되지 않았답니다.

기독교인: 그것이 바로 제가 찾고 있던 것입니다.

무슬림: 처음에는 당신의 모국어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아랍어로 샤하다(신앙선언)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발음하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 저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경배받을 존재가 없음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무함마드는 그분의 종이자 사도임을 증언합니다. 아식하두 안 라~ 이라~하 일랄라~ 와 아식하두 안나 무함마단 라쑈~룰라~
혹시 선지자 무함마드가 성경에 언급된 적이 있을까요?

무슬림: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꼭 무슬림이 성경을 통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성경은 많이 추가되고 변질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원래 기독교를 믿으셨고 성경으로 공부를 했으니 알려 드리도록 하겠고 관련한 자료들도 전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성경 속의 무함마드

이스마엘과 이삭은 모두 축복 받았습니다.

기독교인: 저는 무슬림 친구로부터 이스마엘과 이삭이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배웠는데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은 왜 사라로부터 멀리 떠날 수 밖에 없었나요?

무슬림: 성경에 의하면 이삭이 젖을 떼고 난 후, 그의 어머니 사라는 이스마엘이 그와 함께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이스마엘이 아들 이삭과 함께 후계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1 장 8~10 절: ((아기가 자라나 젖을 떼 때가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사라는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 계집종과 아들을 내쫓아 주십시오. 그 계집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버전 성경에서는 놀렸다고 표현함.

무슬림: 이삭이 젖을 떼었을 때 약 두 살 정도였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여든여섯살이었을 때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아브라함은 백살이었으니, 이스마엘은 그때 열여섯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창세기 16 장 16 절: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팔십육 세였더라))

창세기 21 장 5 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 세라))

창세기 21 장 8~10 절과 창세기 21 장 14~21 절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나이대의 모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전해지기를 아브라함이 직접 이스마엘과 하갈을 데리고 메카 사막에서 새로운 정착지를 세웠는데 이를 성경에서는 이곳을 바란(Paran or Faran)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21 장 21 절: ((그가 바란 광야에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이집트 여자를 데려와 그와 결혼시켰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으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명령이며 그분의 뜻인 것입니다. 하갈은 이스마엘과 메카에 처음 정착한 후 물을 찾기 위해 사파와 마르와의 두 언덕을 일곱 번이나 오가며 달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무슬림들에 의해 메카 성지순례 중에 행해지는 의식 중 하나의 기원입니다.

창세기 21 장 19 절에 언급된 그 우물은 여전히 존재하며 '잠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의 눈에 샘이 보였다. 하갈은 큰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은 이후 함께 메카에서 카오바를 건설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카오바 근처에서 예배하던 장소는 '마감 이브라힘'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전해져 남아 있습니다.

성지 순례 기간 동안 메카의 순례자들과 전 세계 무슬림들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동물을 잡아 제물로 바친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축을 합니다.

기독교인: 잠시만요, 성경에서는 이삭이 제물로 바쳐져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지 않나요?

무슬림: 이슬람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이스마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이스마엘이 제물로 바쳐야 할 때 만들어지고 봉인되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그날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가문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때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창세기 17 장 24~27 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구십구 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십삼 세였더라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1 년 후, 이삭이 태어나 생후 8 일이 되었을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21 장 4~5 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팔 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 세라))

그래서 언약이 만들어지고 봉인되었을 때 (할례와 희생) 아브라함은 아흔아홉 살이었고

이스마엘은 열세 살이었습니다. 이삭은 1 년 후 아브라함이 백살이 되었을 때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인 선지자 무함마드를 필두로 이후에도 모든 무슬림들은 오늘날까지 할례 언약에 충실합니다. 무슬림들은 매일 다섯번의 예배시 무함마드와 그의 가족들을 위한 기도 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기독교인: 하지만 창세기 22 장에는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무슬림: 그 부분이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모순적인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태어나면 아브라함에게 두명의 아들이 있는 것임에도 '오직 하나밖에 없는 너의 외아들 이삭'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장자 이스마엘은 나이가 열세 살이었고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외아들'이라는 표현은 원래 '이스마엘'이었던 것 아니냐 라고 기독교인이라도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극단적 우월주의로 인해 창세기 22 장에서 주인공으로 모두 이삭으로 바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보존하여 우리에게 그들이 바꾸기 전 원래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22 장 17 절의 “네(아브라함)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불어나게 하리라”라는 말은 창세기 16 장 10 절에 나오는 이스마엘에게 일찍이 적용된 바 있습니다. “내가 네(하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따라서 22 장의 ‘네 자손’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 관한 약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에게 창세기 22 장 전체가 적용는 것입니다.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창세기 17 장 20 절과 창세기 21 장 18 절의 약속은 이스마엘에게 똑같이 두 번이나 반복되었던 것이며,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우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무슬림: 그들이 원하는대로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정작 성경의 주장과는 정반대 입니다. 창세기 15 장 4 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따라서 아브라함에서 난 장자인 이스마엘도 당연히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6 장 10 절: ((여호와와 사자가 또 하갈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창세기 17 장 20 절: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열두 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창세기 21 장 13 절: ((그리고 네 여종의 아들도 네가 낳은 자식이니 내가 그에게도 많은 후손을 주어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창세기 21 장 18 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신명기 21 장 15~17 절: ((한 남자가 두 아내를 거느리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는다고 하자. 그런데 사랑을 받는 아내와 미움을 받는 아내가 다 아들을 낳아주었지만, 맏아들이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유산을 아들들에게 상속시켜 주는 날, 미움받는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을 제쳐 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삼을 수 없다.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해 주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 그에게 두 몫을 주어야 한다. 그 아들이 자기의 정력에서 난 첫 소생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는 그에게 있는 것이다.)) 이슬람은 이삭과 그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은 장자인 이스마엘이었다는 것이며, 이스마엘은 선지자들의 봉인으로 후손 무함마드를 탄생시켰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하지만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의 주장은 이스마엘이 사생아였다는 거예요.

무슬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어떻게 불법적인 아내와 혼외아들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인가요?

창세기 16 장 3 절을 보세요: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람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십 년이 지난 뒤이다.)) 합법적으로 한 결혼인데 어떻게 자손이 불법이라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칼데아인과 이집트인 여성의 국제결혼이 자신의 아버지의 딸과 결혼 하는 것보다 더 건강하고 합법적인 것이 아닌가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해당 내용은 창세기 20 장 12 절에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6 장 11 절: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네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이며 그분의 축복받은 이름입니다. 이스마엘이 사생아라는 말이 어디에 있나요?

기독교인: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무슬림: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15 장 18 절: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강에 이르는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집트 나일강에서부터 시리아와 이라크를 가로지르는 유프라테스강까지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인들이 아니던가요?

기독교인: 이삭과 그 자손에게는 약속한 땅이 없다는 건가요?

무슬림: 우리 무슬림들은 이삭도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7 장 8 절을 보세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는 '낯선 사람'이라고 불렸지만 나일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땅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점도 보셨나요? 칼데아인으로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라기보다 아랍인에 가까운 것입니다.

기독교인: 창세기 17 장 21 절에 따르면 이삭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래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무슬림: 그래서 이스마엘이 제외된다는 건가요? 해당 구절 전후로 많은 구절들에서 이스마엘의 이름이 언급되며 그에게 큰 축복과 많은 후손을 약속해 주신 게 명백히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구절이 단 하나라도 있나요?

기독교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자 기준

예레미야 28장 9절: ((그렇지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의 예언이 이루어진 후에야 그가 참으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예언자라는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슬람이라는 단어는 또한 평화와 복종, 즉 창조주와 그의 피조물 간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예수께 적용될 수 없습니다. 예수 자신이 스스로 나는 평화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려고 왔다.))

마태복음 10장 34~36절도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은 아버지와 맞서고 딸은 어머니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서로 맞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자기 원수다.))

실로가 올 때까지

이것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창세기 49장 10절: “규(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는 히브리어로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는 ‘평화’입니다. 만약 사람을 지칭했다면 히브리어로 그것은 샤루아(엘로힘), 사도(야훼의)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혈통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사도직은 실로가 오자마자 중단되게 됩니다.

이 위대한 예언은 구약 2장 133절에 나와있습니다: {그대들은 야곱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함께 있었던 자들인가? 그가 그의 자손들에게 말하니 “나 이후에 그대들은 무엇을 경배할 것인가?” 그들이 말하길 “저희는 당신의 신, 그리고 당신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의 신을 유일신으로서 경배할 것입니다. 저희는 그분께 복종(이슬람)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사도직이 다른 민족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는 것은 예레미아 31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는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도 예수께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베카가 메카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건립한 카으바는 메카에 있습니다.

이 이름 '메카'는 꾸란 48장 24절에 한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메카의 또 다른 이름은 부족의 방언에 따르면 '바카'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로서 꾸란 3장 96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인류를 위해 놓여진 최초의 집은 바카에 있는 것으로서 축복이 가득하며 모든 이들을 위한 진리의 길잡이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카라는 단어는 선지자 다윗이 시편 84장 6절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그들이 바카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이 샘의 골짜기가 되며 가을비도 그 곳을 축복으로 채워 줍니다.)) (한국어 성경 많은 버전들에서 '바카'라는 단어를 지우기 위해 노력함. 킹 제임스 버전에 번역되어 있는 Valley of Baca는 개역개정본에 "눈물 골짜기"로 번역되어 있음)

이 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메카에 있는 카으바 근처에 위치 한 잘 알려진 축복받은 잠잠의 우물입니다.

영화로운 나의 집

이사야 60장에서는 아랍 민족과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우는 메카에 있는 카으바에 대하여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1절: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야훼의 영광이 너를 비춘다.

2절: 온 땅이 아직 어둠에 덮여, 민족들은 암흑에 싸여 있는데 야훼께서 너만은 비추신다. 네 위에서만은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

3절: 민족들이 너의 빛을 보고 모여들며 제왕들이 솟아오르는 너의 광채에 끌려오는구나.

4절: 머리를 들고 사방을 둘러보아라. 모두 너에게 모여오고 있지 않느냐? 너의 아들들이 먼 데서 오고, 너의 딸들도 품에 안겨온다.

5절: 이것을 보는 네 얼굴에 웃음의 꽃이 피리라. 너의 가슴은 벅차 올라 부풀리라. 바다의 보물이 너에게로 흘러오고 못 민족의 재물이 너에게로 밀려오리라.

6절: 큰 낙타떼가 너의 땅을 뒤덮고 미디안과 에바의 낙타들이 우글거리리라. 사람들이 세바에서 찾아오리라. 금과 향료를 싣고 야훼를 높이 찬양하며 찾아오리라.

7절: 케달의 모든 양떼가 너에게로 모여오리라. 네가 느바웃의 숫양들을 제물로 바치게 되리라. 그것들이 나의 제단에 오르므로 나는 마음이 즐거워 영화로운 나의 집을 더욱 빛내리라.

이스마엘의 아들 케다르의 부족들은 분열을 거쳐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영화로운 나의 집’은 기독교 논객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메카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우는 카으바입니다. 케다르(게달) 마을(현재 사우디 아라비아)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교회의 영향력을 받지 않은 순수한 장소인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1절: ((밤에도 낮에도 잠그지 아니하고 네 성문은 늘 열려 있어, 왕들이 앞장 선 가운데 못 민족이 보화를 성 안으로 들여오리라.))

14세기 전 선지자 무함마드가 그 안에 있던 우상을 제거한 이후 메카의 카으바를 둘러싸고 있는 성원들은 밤낮으로 그 문을 열고 있었으며 수많은 통치자들과 피지배자들이 순례를 위해 이곳으로 들어왔던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나귀 전차와 낙타 전차

이사야 21장 7절에 나오는 두 기수에 대한 비전: ((만일 그가 쌍쌍이 말을 타고 오는 사람들이나 나귀와 낙타를 타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 세심히 관찰하게 하라.))

어린 나귀를 탄 사람은 누구였나요? 기독교인이라면 그가 예수라는 것을 아실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렇다면 낙타를 탄 약속된 기수는 누구일까요? 이 강력한 예언자는 기독교인들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예언자 무함마드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1장 13절에 보면 정확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라비아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것은 아랍 무슬림들과 지금의 모든 무슬림들이 이슬람의 메시지를 전파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21장 14절: ((목마른 피난민들에게 마실 물을 주어라. 데마 땅에 사는 사람들아, 아라비아의 피난민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 주어라.))

놀랍게도 이는 이슬람의 히즈라(이주)를 묘사합니다. 데마는 메디나를 의미하는데 선지자 무함마드와 그의 교우들이 불신자들의 박해를 피해 피난한 도시입니다.

각 이주자들은 선지자 무함마드에 의해 메디나 거주민들과 의형제를 맺고 형제애를 나누었습니다. 이주자들에게는 음식과 쉼터도 제공되었습니다.

이사야 21장 15절: ((그들은 칼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사람들이다. 칼이 그들을 치려 하고, 화살이 그들을 꿰뚫으려 하고, 전쟁이 그들의 목숨을 노리므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이슬람에 대해서,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이라면 이 구절을 보고 히즈라(이주)가 바로 떠오를 것입니다. 메카에서 불신자들의 핍박과 공격을 피해 메디나로 이주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사야 21장 16절: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 년 기한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된 머슴이 날 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일 년을 센다. 일 년 만에 게달의 모든 허세가 사라질 것이다.))

실제로 히즈라 2년차가 들어서자 아랍 불신자들은 바드르 전투에서 패배하였습니다.

마침내 이사야 21장 17절: ((게달의 자손 가운데서 활 쏘는 용사들이 얼마 남는다고 하여도, 그 수는 매우 적을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마무리 됩니다.

케다르(게달)는 이스마엘(창세기 25:13)의 둘째 아들로, 그의 후손 중에 결국 선지자 무함마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케다르(게달)의 자손들은 불신자였기에 무함마드와 그의 동료들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가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서 저항하는 케다르(게달) 후손들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성경 구절에서 '케다르(게달)'는 에스겔 27장 21절과 같이 일반적으로 '아랍'과 동의어로 쓰기도 합니다: ((아랍인인 게달의 모든 수령도 너와 거래를 했다. 새끼 양과 숫양과 숫염소를 가지고 와서 무역을 하였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1. 이삭의 자손(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지는 자손)의 형제들은 이스마엘 자손(아브라함에서 이스마엘로 이어지는 자손)입니다. 예수는 이삭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예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의미한다면 '그들의 형제 중에서'가 아닌 '너희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라고 써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2. 무함마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예언은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다. 알티하드(1982년 1월~3월) 41페이지에서 발췌한 아래 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세	무함마드	예수
탄생:	일반적	일반적	비일반적
가족 생활:	결혼했고 자녀있음	결혼했고 자녀있음	비혼, 자녀없음
사망:	일반적	일반적	비일반적
경력:	선지자/정치지도자	선지자/정치지도자	선지자
어른이 되어 강제 이주:	메디안으로(Median)	메디나로(Madinah)	없음
적과의 전투:	극심한 추적	극심한 추적/전투	비슷한 교전 없음
교전 결과:	정신적/육체적 승리	정신적/육체적 승리	정신적 부분
성서의 보존	'토라'가 살아 있을때 게시되어 보존	'꾸란'이 살아 있을때 게시되어 보존	그가 죽고나서 다른 이의 복음서가 우후죽 순 생겨남
가르침의 성향:	정신적/법률적	정신적/법률적	주로 정신적 부분
국민들이 그의 지도력을 수용했는가:	처음엔 거부했으나 수 락됨	처음엔 거부했으나 수 락됨	이스라엘 국민 대부분 이 거부함

3.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성경에 나오는데로 하나님의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선지자 무함마드의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고 실제 선지자 무함마드는 그의 입으로 자신의 욕구는 말하지 않았고 오직 계시 받은 진리만을 전했다는 것은 무슬림이라면 다 알고 믿는 부분입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둔다는 성경의 표현은 모세나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서면으로 언약을 받은 민족에게는 생소한 것이며 선지자 무함마드의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꾸란 계시가 그 예언을 충족한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9절: ((그가 내 이름으로 하는 말을 전할 때 듣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친히 그에게 추궁할 것이다.))

이 성경 구절과 비교해 볼 때 꾸란의 114장 중에서 무려 113장에서 모두 다음과 같이 시작 구절이 반복됩니다: {가장 자비로우시며, 가장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문구는 모든 새로운 활동을 할 때 무슬림들의 연설이나 일상 생활에서도 항상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의 이름'은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엘리'와 가까운 '알라'이며, 그것은 영어의 간(god)처럼 여성형이 있다거나 복수형이 있지도 않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라 주장하거나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려 할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며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확히 '내 이름'으로 말을 전하는 이들은 누구인가요?

또한 신명기 18장 19절에 나오듯 그가 가져온 메시지를 듣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꾸란 3장 19절에도 나옵니다: {실로 하나님께 있어 종교는 이슬람이라.}

그리고 꾸란 3장 85절을 읽어 보십시오: {이슬람 이외의 것을 종교로 삼길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며 내세에서 손실자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

내가 택한 나의 종복, 나의 사도

사도 무함마드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이사야 42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절. ((내가 불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

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또한 19절에서는 “나의 사도”라고도 불립니다. 의심할 바 없이 모든 선지자들은 종복이자, 사도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자였습니다. 그러나 무함마드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특정 직함으로 보편적으로 불린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아랍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두후 와 라쑤~루후 알-무스따파(그의 종복이자 그의 사도인 선택받은 자). 또한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증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분의 종복이자 사도임을 증언합니다.’ 이 동일한 구절이 예배시간을 알리는 아잔에서 하루 5번, 기본 최소 의무 예배를 할 때 타샤후드 기도문에서 하루 9번, 또한 추가로 하는 자발 예배까지 여러 번 더 반복됩니다. 선지자 무함마드의 가장 일반적인 칭호는 ‘하나님의 사도’라는 뜻의 ‘라술알라’입니다.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선지자 무함마드의 품위를 떠올리게 합니다.

3절. ((그는 ... 의로운 심판을 성실하게 베풀 것이다.))

4절.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이것은 적들에게 승리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민족의 거부로 하나님의 국가를 건설하지 못한 예수와는 비교되는 것입니다.

5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종에게 말씀하신다))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무슬림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6절. ((나 여호와가 너를 부른다. 정의를 세우라고 너를 부른다. 내가 너의 손을 잡아 지켜주고 너를 세워 인류와 계약을 맺으니 너는 만국의 빛이 되어라.)) 이 구절은 무함마드가 마지막 선지자이며 그 다음으로는 다른 선지자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이방인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 수 많은 민족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였음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눈먼 자들이라는 표현은 불신자들, 이교도들을 뜻합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한다는 뜻은 무함마드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노예 해방을 시작하며 평등 선언을 한 것을 나타냅니다.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사도 무함마드는 ‘선지자들의 봉인’이며 그분 외에 다른 선지자는 더

이상 없음을 나타냅니다. 무함마드의 가르침은 기독교와 유대교와는 달리 오늘날까지도 변질되지 않고 이어져 있으며 이는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유일무이합니다.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10절.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새 노래라는 것은 히브리어나 아랍어가 아닌 아랍어로 된 노래를 말합니다. 예배시간을 알리는 아잔은 전세계 수백만개의 모스크에서 하루 다섯 번씩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매일 울려퍼집니다.

11절.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게달이라는 단어가 명백히 나온 이상 어떤 유대인도 기독교인도 여기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예언된 사도가 유대인의 사도이거나 예수라고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케다르(게달)는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창세기 25장 13절을 참조)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나오는 노래라는 것은 실제 아랍 민족과 전세계 무슬림들이 매년 사막을 지나 메카로 와서 아라파트 산으로 올라 외치는 구절을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는 당신의 부름에 응하였습니다. 저는 당신의 부름에 응하였습니다. 저는 당신의 부름에 응하였습니다. 당신께 대등한 존재는 없으며, 저는 당신의 부름에 응하였습니다. 실로 찬미와 은총과 주권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께 대등한 존재는 없습니다.”

12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그리고 이슬람은 인도네시아와 카리브해까지 작은 섬으로 퍼져 나갔고 하나님 한분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계에서 이슬람이 가장 널리 퍼진 곳은 아랍도 아니고 섬들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용사 같이 나가시며 전사 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무함마드의 등장으로 단기간 매우 짧은 시간내에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적을 무찌르고 나라를 세운 적이 없기 때문에 더욱이 구절은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부합한 것입니다.

다윗 왕은 그를 '나의 주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시편 110장 1절: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에는 두 분의 주님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주님이 하나님이라면 두번째 주님도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직 한분의 하나님만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군께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다윗이 말한 '나의 주군'은 누구였을까요? 기독교에서는 그게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마태복음 22장 45절, 마가복음 12장 37절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44절에서 이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예수 자신은 이 칭호로 불릴 수 없습니다. 예수가 다윗의 후손인데 어찌 다윗이 예수를 '나의 주군'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누가복음 20장 42~4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기독교인들은 이 구절을 보고 예수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스스로 본인이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할 것이지만 사실 실제로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고 성경도 그렇게 주장하기에 정반대로 다윗이 말한 주군이 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 스스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한대로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니 어찌 다윗의 주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바나바 복음서에서도 나왔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에게 있었고, 모든 선지자들 중에 무함마드보다 큰 업적을 세우고 실제로 원수(적)들과 싸워서 큰 나라를 이룩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언급한 '주군'은 무함마드에 대한 존경이었고 그리고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본디 가르침을 잘 지켜서 누구도 무함마드를 하나님으로 경배치 못하도록 하였고 이슬람 잘 보존시켜 전세계 모든 무슬림들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토록 하였으니 모든 선지자들이 존경할 만한 이보다 큰 업적은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 무함마드의 메카에서 메디나로의 이주 예언

하박국 3장 3절: ((하나님이 데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이 데만에서부터 오고 성스런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온다고 나오는데, J. Hasting's Dictionary of the Bible에 의하면 데만은 메디나의 오아시스 남쪽을 뜻하고, 바란산은 아라비아 반도에 메카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는 선지자 무함마드의 메카에서 메디나로의 이주를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 그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21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입니까?'

예수와 세례 요한이 등장한 후 오랫동안 기다려온 선지자는 누구였나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모세와 닮은 선지자(신명기 18:18)는 바로 무함마드가 아니었던가요?

성령과 불로 세례하기

불로 세례 한다는 것은 불 같은 율법을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절: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취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 같은 율법이 있도다))

또한 바란 산에서 오는 일만 성도는 메카의 무혈입성시 무함마드를 따르던 사하바들(선지자의 교우) 숫자와 동일합니다.

세례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며))

그분이 예수를 암시하는 것이라면 세례 요한은 다시 사막에 살기 위해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와 함께 하며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여기서 또 다른 강력한 선지자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다음에 오는 예수는 그때 바로 동시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언하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세례 요한이 암시하는 선지자는 바로 선지자 무함마드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성령 가브리엘 천사를 무함마드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서(꾸란)를 내리셨고 성경에 나온대로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했으며 불 같은 율법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인해 큰 제국을 이루게 되었으며 전세계에 많은 무슬림들이 하나님만 경배토록 한 마지막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마지막 선지자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일찍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이라도 그 사람보다는 크다.))

세례 요한이 아담,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다른 많은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이 믿겨지시나요? 세례 요한이 몇 명의 이교도를 개종시켰으며, 그의 추종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요점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늘나라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는, 이 작은 사람이 누구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당시에 요한과 같은 시대에 있었기에 여기서 나오는 작은 이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들보다 더 후대에 나온 선지자여야만 하는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자 이스마엘의 후손인, 선지자들중에 가장 나이가 작은,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인 것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자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새번역을 보면 그들은 복을 받는다고 나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명예롭고 축복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신이 아닌 것이구요.

“이슬람”이라는 단어의 의미 중 하나는 평화이며 그것은 창조주와 예배자 간의 평화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평화를 목적으로 보내진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이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누가복음 12장 49~53절도 참조하세요: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을 다 겪어낼 때까지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지 모른다. 내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사실은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는 코이네 그리스어(헬라어)로 기재된 원본 신약에 기재된 '파라클리토스'(Παράκλητος : Parakletos)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파라클리토스는 '조력자, 변호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파라클리토스라는 단어는 예수가 말씀하신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기에 그 의미가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거나, 혹은 전승 과정에서 왜곡이 이루어진 표현인 것입니다. 이슬람이 제시하는 정확한 표기는 '페리클리토스'가 아니라 '페리클리토스' (Περικλυτος : Periklytos)입니다.

'페리클리토스'는 '칭찬받는 자, 존경받는 자'라는 뜻을 지닙니다. '칭찬받는 자, 존경받는 자'를 아랍어로 옮기면 바로 무함마드입니다!

즉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 자기 이후에 올 존재에 대한 기쁜 소식은 바로 무함마드의 출현인 것입니다.

꾸란에 의하면, 예수(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가 전한 기쁜 소식은 그 이후에 올 하나님의 사도 '아흐마드'의 출현입니다. 아흐마드는 무함마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꾸란은 예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얌(마리아)의 아들 이사(예수)가 말하니 '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여! 실로 나는 그대들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사도로서 나 이전의 타우라(모세오경)를 확증하노라. 그리고 나 이후에 '아흐마드'라는 이름의 사도가 올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그러나 그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그들에게 도래했을 때, 그들이 말하길 '이것은 명백한 주술이라.'" (꾸란 제 61장 6절)

따라서 예수가 전한 기쁜 소식은, 꾸란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무함마드의 출현입니다.

자, 이제 성경에 비추어서 이 보혜사가 무함마드의 특징과 같은지 살펴봅시다:

1.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의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보혜사들이 왔고 이제 새로운 한명의 보혜사가 올 차례라는 것입니다.
2. 마찬가지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즉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것은 그가 마지막 보혜사(선지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보혜사(선지자)가 오지 않을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대로 그는 마지막 보혜사(선지자)로서 그의 가르침은 영원히 지켜지고 유지될 것인데 실제로 꾸란과 선지자 무함마드의 가르침은 1400년 전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을 비롯한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웃들에게 죄를 꾸짖었지만 온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무함마드는 단 23년만에 아라비아 반도 전체의 우상숭배를 뿌리뽑았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와 로마 제국의 주권자인 헤라클리우스, 에티오피아의 왕 나자쉬, 마까우끼스 이집트 총독에게까지 사절을 파견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셋으로 나누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 후에는 예수를 하나님 그 자체로 만드는 것에 대한 죄를 책망했습니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성서를 변형시킨 것을 책망하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마엘의 축복과 권리를 입증하셨으며,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의 간통, 근친상간, 강간, 우상숭배에 대한 비난에서 선지자 무함마드는 변형된 성경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의 결백함을 밝히셨습니다.

3.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의하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어린시절부터 선지자 무함마드는 '알아민', 즉 정직하거나 진실한 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진실과 진리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라는 것이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4. 또한 동일 구절에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라는 것도 선지자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꾸란 안에서도 선지자 무함마드나 그의 교우들의 말은 단 한마디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선지자에게 그것을 읽었고, 선지자는 그것을 외웠고, 필경사들은 그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선지자 무함마드께서는 자신의 말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셨고 꾸란만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기독교인이 말하는 보혜사=성령이 아니라,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것은 꾸란 53장 2~4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동료(무함마드)는 방황하지도 않고 유혹되지도 아니 했으며 그는 그의 욕망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계시라}
5.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주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대로 일러주실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도 알려주실 것이다.)) 실제로 선지자 무함마드로 인해 많은 예언이 실현되었고 나머지는 앞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6. 요한복음 16장 14절: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꾸란과 선지자 무함마드를 보면 성경이나 기독교인들보다 더욱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높이고 있고 심지어 예수에 대해서도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꾸란과 달리 예수를 존경스럽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내용들을 명확히 살펴 봅시다:

- a. 신명기 21장 22~23절과 신명기 13장 5절에 따르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것은 그

가 선지자 자격이 없는 것이며 저주받은 것이 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 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 선지자나 꿈 꾸는 자는 죽이라))

- b. 마태복음 27장 46절: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어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선지자가 아닌 사람도 자신의 죽음이 순교자가 되는 걸 안다면 불평하는게 아니라 고통이 있어도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에 대한 모욕이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였다고 조롱하는 것 아닌가요?

- c. 우리 무슬림들은 예수가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로 분류하고 어머니를 예의없이 불렀다는 주장을 믿지 않습니다.

꾸란 19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에게 효도하게 하셨고 저로 하여금 거만하거나 불행한자가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반면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선지자 무함마드를 예언한 성경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함마드에게 내리신 첫 계시(꾸란 96장 1절)는 'Iqraa' 입니다. '이끄라'라는 아랍어는 한국어로 '읽으라'는 뜻입니다. 문맹이었던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읽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29장 12절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
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
니라))

꾸란의 구절은 잘 알려져 있듯이 시대 순으로 순서대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번
에 다 계시된 것이 아니라 23년동안 단계적으로 계시된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는 이사야 28장 10~11절에 나옵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
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실제로 꾸란은 일부 교훈을 주는 구절이 여러곳에 조금씩 반복되어 나오고 추가로 더해
지기도 합니다. 또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신다는 뜻은 기존
의 성서의 백성들이 쓰던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아니라 아랍어로 계시가 될것임을 의미합
니다.

전 세계 무슬림들은 예배, 기도 그리고 서로 인사를 할때도 통일된 '아랍어'를 사용합니
다. 이러한 언어의 통일성은 스바냐 3장 9절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못 민족
의 입술을 정하게 하여 모두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를 섬기게 하
리라.))

매우 놀랍게도 전 세계 무슬림들은 예배 전 손과 얼굴을 청결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와 발을 나란히 한줄로 붙인 후 예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물에게서 가장 흡족해 하시는 경배 방법이며 예수께서도 재
림하셨을 때도 무슬림들과 함께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법(샤리아)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무슬림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으며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
등 모든 이전의 선지자들과 하나님 한분만 믿었던 진실된 믿음의 선조들을 천국에서 만
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로 인해 하나님의
종교가 변질되었지만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
길)로 인해서 아랍 민족 뿐 아니라 전 세계 무슬림들은 하나님 한분만을 경배 할 수 있
게 되었고 우리는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께만 복종할 것입니다.

끝.

وَصَلَّى اللَّهُ وَسَلَّم وَبَارَكَ عَلَى نَبِيِّنَا مُحَمَّدٍ وَعَلَى آلِهِ وَأَصْحَابِهِ أَجْمَعِينَ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우리들의 선지자이신 무함마드와 그분의 가족들과 그분의 교우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어 사용자들을 위한 링크들을 소개 해 드립니다.

1. K-Islam (한국인 무슬림의 이슬람 강의)

<https://www.youtube.com/@kislam>

2. 한국이슬람방송 <-이 채널에서 주로 한국어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https://www.youtube.com/@alkorykorea>

추후에 운영할 아랍어교육방송도 원하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https://www.youtube.com/@alkorykorean>

이슬람에 관심이 있으시면 아래 카카오톡 채팅방을 가입하세요.

<https://open.kakao.com/o/gS4Od3hf>

만약 카카오톡 인증 문제로 가입이 안되시는 분은 아래 텔레그램 채널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https://t.me/islamkorea>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http://www.islamkorea.com>